

북한 주민과 관료의 '메티스'와 체제전환의 동학: 앙리 르페브르의 '대안공간'을 중심으로*

김 종 욱**

- I. 들어가며: 행정치의 '융장합'과 주민의 '속삭임'
- II. '메티스'와 체제전환의 동학
- III. 국가전략과 충돌하는 일상, 그리고 공간의 변형
- IV. 북한사회 공간의 변형과 일상의 변화
- V. 나오며: '희뿌연' 파노라마의 북한

국문요약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 주민과 관료의 '기억-공간-일상'의 변화와 체제전환의 연계 동학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체제전환은 제도변화뿐 아니라 사회의 공식·비공식 연결망 구조의 변화, 문화와 신념·가치의 변화 등을 포괄한다. 따라서 기억과 행동에 의해 공간과 일상의 변형을 추적하는 것은 연결망 구조의 변화, 문화와 신념·가치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매개이다. 동시에 '기억-공간-일상'의 변형과정은 체제의 균열 속도와 방향의 경로를 알려주는 신호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 체제전환의 중요한 영향요소로서 변화하는 자연과 인간 환경에 적응해 온 '실용적 기술'과 '획득된 지혜'로서 북한 주민과 관료의 메티스를 추적한다. 북한사회는 주민과 관료들의 기

역에 의한 행동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다양한 '메티스'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주민과 관료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 '대안공간'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민이 통제·억압하는 권력에 맞서 '메티스'로 행동하는 전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국의 통제로는 제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새로운 관계망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흐름이 바로 체제전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주제어: 공간, 기억, 대안공간, 대항기억, 동학, 메티스, 시장, 일상, 작업장, 지배공간, 집단기억, 체제전환, 파놉티콘

* 이 논문은 2015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7041182).

아직 모자란 논문을 넓은 품으로 평가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송곳 같은 평가는 향후 연구의 좋은 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심사자 분들의 의견에 이 논문에 충분히 반영·수정하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조만간 발표 예정인 논문에서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다.

** 동국대학교

I. 들어가며: 행정치의 ‘용장함’과 주민의 ‘속삭임’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폼페이오의 방북(2018.3.31.~4.1.)을 계기로 북한의 ‘잠재적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2018.4.20.)에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무력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집중노선’으로의 변경 등을 담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동시에 올 4월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을 담은 선언문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놀랄 정도의 합의에 도달했다. 그야말로 ‘폭풍 같은’ 변화의 도정에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이런 파격적인 변화의 원인은 북한사회 내부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압력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충돌과 조정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변화된 전략에 대해 핵 고도화의 완성에 따른 협상력 제고에 있다는 의견과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인한 체제 유지 차원이라는 대립적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단, 북한사회의 변화와 관련, 분명한 점은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향상되었으며,¹ 북한사회의 ‘시장화’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되었고, 북한의 일부 기업은 자본주의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² 동시에 국제사회는 과거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강력한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사회는 ‘증대한 기로’에서 있으며 새로운 변화의 길로 가야 한다.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은 국내외의 다양한 조건들에 의한 것이겠으나,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사회 내부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변화가 북한의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추적하는 것이다.

1990년대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와 상징권력인 ‘수령’의 사망, 증여시스템의 붕괴, 심각한 자연재해에 의해 위기국면에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과 관료들은 새로운 ‘기억-공간-일상’을 체험했고, 지배의 전략에 순응하면서 동시에 새로

¹ 전문가들은 ICBM 기술과는 별개로 북한이 6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완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위력은 군 당국 기준 5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위력)이었다. 미국에선 300kt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50kt이라면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위력(15kt)의 3.3배다. 비공식 핵보유국 파키스탄이 1998년 감행한 마지막 핵실험 위력은 40~50kt 규모로 알려져 있다. 『동아일보』, 2018년 4월 23일.

² “Creeping capitalism: How North Korea is changing,” *BBC News*, October 9, 2015.

은 생존과 저항의 방식을 구성했는데, 그것이 바로 생존의 윤리로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가는 '실용적 기술과 지혜'인 '메티스(mētis)'이며, 이를 통해 사회관계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즉, 북한의 주민과 관료들이 겪어온 삶의 기억과 체험이 누적되어 새로운 행위의 원천이 되고, 갱신된 '메티스'에 의해 일상과 공간이 변형되는 과정이 반복되는데, 이 '메티스'가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가하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북한의 공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와 범주에서 진행되었다.³ 특히 도시의 형성과 발전, 변화를 통해 체제의 동학을 발견하려는 연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⁴ 동시에 이러한 공간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입체적이며 구체적인 새로운 연구를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들이 계속 등장했다.⁵ 이러한 흐름은 북한연구에서 공간과 도시의 문제가 새로운 연구의 대상으로 발견·해석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간을 둘러싼 지배와 저항의 길항(拮抗)관계 속에서 새로운 공간적 변형과 점유가 발생하고, 변모된 공간을 통해 체험된 기억은 새로운 행동으로 전이되어 북한 주민과 관료의 심성과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중층적 과정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억-공간-일상을 전유하는 북한 주민과 관료들의 '메티스'를 통해 '대안공간'의 확산과 형태를 추적함으로써 체제 변화의 입체적 모습을 포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관계의 구성은 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체제전환의 동학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체제전환의 동학은 주민과 관료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기억, 기억의 축적에 의한 행동의 변화, 그 행동의 실천에 의한 공간의 변형, 이 모든 것이 전개되는 일상의 변화과정의 추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2장에서 메티스와 체제전환 간의 동학에 대해 설명한다. 제3장에서 국가전략과 충돌하는 일상, 일

³ 북한 공간에 대한 연구의 범주와 연구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제시된 내용은 홍민, "북한연구에서 '공간' 이해와 도시사의 가능성: 함흥과 평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8권 2호 (2012), pp. 14~18 참조.

⁴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최완규 엮음, 『북한도시의 위기와 변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이우영 엮음,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 임형백, "사회주의 북한 공간구조의 자본주의 공간구조로의 변화 전망: 북한 내부요인과 동북아공간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10권 1호 (2010) 등.

⁵ 김종욱, "북한 관료의 일상과 체제변화: '지배공간'의 변형과 기억의 실천," 『현대북한연구』, 제12권 3호 (2009); 조정아, "구술자료를 활용한 북한 도시연구: 이론적 자원과 방법," 『북한학연구』, 제8권 2호 (2012); 오인혜, "북한의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과 점화 효과: 재미교포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0권 4호 (2015) 등.

상의 변화에 의한 공간의 변형이 어떻게 발생하며, ‘지배공간’을 ‘대안공간’으로 전환하는 주민과 관료들의 메티스를 살펴본다. 제4장은 북한사회의 공간 변형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며 이 변화에 따라 일상이 어떻게 변모되는지 살펴보면서, 체제 전환의 양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제5장 결론을 통해 마무리할 것이다.

II. ‘메티스’와 체제전환의 동학

주어진 체계가 얼마나 공포를 부추기든 간에, 어떠한 저항도 사전에 막아버리는 고문과 처형을 제외한다면, 언제나 저항과 불복종, 대항 세력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는 일반적으로 간과되는데-고려해야만 합니다.⁶

“자신의 의지를 타인의 행동으로 강제할 수 있는” 지배에 복종하는 것,⁷ 그 역으로 지배에 의한 억압에 맞서 전개되는 저항과 불복종, 이 지배와 저항의 충돌은 새로운 대항 세력화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저항과 불복종은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체제전환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변화, 전체주의에서 민주주의 제도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체제이행’이 아니라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제도적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연결망 구조나 문화, 지배적 가치와 신념체계의 변화를 뜻한다.⁸ 따라서 체제전환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의사결정의 분권화, 소유제도의 다양화, 정부의 계획과 시장의 조화와 개혁적 조치 등의⁹ 제도적 측면에서부터 주민과 관료의 기억과 행동에 의한 공간과 일상의 변화 양상까지 체제에 변화를 가하는 것들에 대해 추적하는 것이다.

⁶ 미셸 푸코, “공간, 지식, 권력: 폴 라비나우와의 인터뷰,” 미셸 푸코, 이상길 옮김, 『헤테로토피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6), p. 72.

⁷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p. 942.

⁸ Frank Bonker, Klaus Miller and Andreas Pickel, “Cross-Disciplinary Approaches to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Context and Agenda,” Frank Bonker et al.(eds.),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and the Social Science: Cross-Disciplinary Approache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2). 최완규·이무철, “북한의 체제전환 전략과 국제협력: 평가와 과제,” 『현대북한연구』 제12권 1호 (2009), p. 10에서 재인용.

⁹ Marie Lavigne,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95), pp. 29~43.

1. '기억-공간-일상'과 '체제전환'

역사는 기본적으로 시간 가운데서 공간을 형성하고 배열하며 규정한 방식에 따라 영위되는 일상으로 구성된다.¹⁰

체제전환이 국가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경로 의존적' 규정력(개별 국가들의 역사적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과 국가 내부의 집합적 행위주체의 전략적 선택(경로형성전략: Path shaping strategy)의 결합에 따른 복합적 산물이라면,¹¹ 집합적 행위를 만들어내는 주체들의 '기억-공간-일상'의 변화에 대한 추적은 집합적 행위주체들(주민과 관료)의 전략적 선택의 근거를 밝혀 줄 것이다. 또한 집합적 행위 주체의 전략적 선택은 사회공간의 변형 속에서 체제전환을 담당할 이행주체의 형성과도 밀접하게 연동된다. 체제의 변화는 이행주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행동했는지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의 주민과 관료는 기존 체제가 장악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을 축적하고 공간을 변형시킨다. 이 축적과 변형의 경로와 빈도·강도 등이 기존의 '경로 의존적' 규정력을 파괴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즉, '경로 의존적' 방향을 파괴하는 집합적 행위주체의 전략적 선택이 북한 체제의 새로운 경로를 형성할 것이라는 뜻이다.

기존의 경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과 이 경로를 이탈하려는 집합적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선택의 움직임은 서로 연계·착종되어 있다. 이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과 이행 주체를 형성하여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서로 연계 또는 착종되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는 곳은 북한이라는 공간이며, 공간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은 기억의 축적에 의한 실천이다. 이 기억의 실천에 의한 공간의 변형은 일상생활세계에서 벌어진다.

기억의 실천은 사회적 행위라 할 수 있다. “‘행위’는 행위자가 주관적 의미를 이 행위와 결부시키는 경우에 그리고 결부시키는 한에서의 인간의 행위다. ‘사회적’ 행위는 행위자가 뜻한 의미에 따라 타인들의 행태와 관련되고 그 경과 속에서 타인의 행태를 지향하는 그런 행위다.”¹² 즉, ‘사회적 행위’는 ‘타인과 관련된 의미 있는 인간 행위’이다. 어떤 개인이 누적된 기억에 의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실천은 ‘사

¹⁰ 장세룡, “헤테로토피아: (탈)근대 공간 이해를 위한 시론,” 『大丘史學』, 제95집 (2009), p. 285.

¹¹ Petr Pavlinek, “Alternative Theoretical Approaches to Post-Communist Transformation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cta Slavica Iaponica* No. 20 (2003), p. 88.

¹²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p. 4.

회적 행위'이며,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기억과 실천의 누적은 낯선 감각에서 점차 일상적 감각으로 전환되고 상식화의 단계를 거친다. 대체적으로 전통은 감정전염이나 의식적 공감에 의해 전승되고, 부차적으로 의식적 언어행위를 통해 전승된다.¹³ 무의식적 행위에 의해 나타나는 전통은 바로 일상생활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다양한 행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부차적인 언어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 몸짓, 느낌, 교감 등 인간 전체로 느끼면서 전승된다. '기억-공간-일상'의 교차 연계를 통해 복합 체제전환을 이해하는 것은 일종의 새롭게 생성되는 집합적 행위주체들의 기억을 추적하는 것이며, 공간의 변형을 분석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성된 일상을 해석하는 것이다.

2. 일상생활세계와 '메티스'

일상이란 의식주처럼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 삶의 형태로서 매일매일 반복되고 지루하게 계속되며 별다른 성찰 없이도 일어나는 행위들이다.¹⁴ 그러나 일상(日常)은 아무런 변동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시공간으로 보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잉태된다. 일상의 어떤 사건을 계기로 생활세계는 심각한 변동을 일으키고, 과거와는 다른 현실 또는 미래로 인도한다. '전통에 폭력적으로 끼어들어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선과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상황을 연출한다.¹⁵ 르페브르(Henri Lefebvre)에 의하면 "권력은 일상생활의 분명한 따분함 속에, 일상생활의 사소함 아래 깊은 곳에, 일상생활의 바로 그 일상성(ordinariness) 안에서 비밀상적인 어떤 것으로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¹⁶ 따라서 일상생활세계 안에서 "매일매일,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계속 전유되고, 판독되고,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그럼으로써 '현실적'으로 되는 실천"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¹⁷

즉,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수행한 '주체'들의 이야기를 기존 역사에 개입시켜야

¹³ 황태연,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 2: 공자 윤리학과 정치철학의 심층이해를 위한 학제적 기반이론』 (파주: 창계, 2015), p. 2114.

¹⁴ 안병직 외, 『오늘의 사회학』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8), pp. 29~30.

¹⁵ 해리 하르투니언, 윤영실·서정은 옮김, 『역사의 요동: 근대성,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 (서울: 휴머니스트, 2008), p. 77.

¹⁶ Sam Halvorsen, "Taking Space: Moments of Rupture and Everyday Life in Occupy London," *Antipode* Vol. 47 No. 2 (2015), p. 406.

¹⁷ 알프 쿠틀게, 이동기 역, "'붉은 열정'이 어디 있었던가?," 나종석 외 옮김, 『일상이란 무엇인가』 (서울: 청년사, 2002), p. 331.

한다. 국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삶의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대중은 “권력이 부과한 기존질서의 골격을 재채용(re-emploiement)하고 내부적 변형을 가하며 일상적 투쟁과 저항을 실천”했다. 이 과정은 “지배집단이 부과한 체계를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무한히 변환하고 적응하는 ‘전유(appropriation)’의 과정”이었다.¹⁸ 이렇듯 대중은 지배자에 의해 강요된 지배전략을 ‘재채용’, ‘은유화’, ‘침투(insinuation)’의 형식으로 횡단하는 ‘밀렵(braconnage)’¹⁹의 전략으로 대응했다.²⁰

권력 없는 대중은 일상 속에서 언제나 규정, 규칙, 경향을 따르고 그것에 동참하면서도 때로는 이탈하고 거리를 두며, 고집스럽게 거부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실천했다.²¹ 즉, 불평등과 억압의 대상인 대중들은 저항적 통방(通房)행위와 연대적 모의를 통해 지배의 의도를 ‘전유’하거나 저항하는 방식을 통해 ‘일상의 정치’ 영역을 구축한다. 이처럼, 일상생활세계에서 북한 주민들이 벌이는 다양한 삶의 영위는 기억의 실천, 공간의 변형, 일상 삶의 재구성으로 나타난다.

북한사회는 주민과 관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일상을 꾸려나가는 ‘메티스’로 가득 찬 공간이다. ‘메티스’는 항상 변화하는 자연과 인간 환경에 적응해온 ‘실용적 기술’과 ‘획득한 지혜’의 포괄적 영역을 의미하며, 암묵적이고 경험적인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제2의 천성이 될 만큼 기민하고 실용적인 적응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또한 ‘메티스’는 어떠한 공식도 적용할 수 없는 천재성이라는 영역과 기계적인 반복으로 습득할 수 있는 성문화된 지식 영역 사이의 넓은 공간에 있는 인간의 포괄적 행위를 의미한다. 즉, ‘메티스’의 본질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경험의 법칙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적용하는지 아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제도도 다양한 인간들의 ‘메티스’를 통해 변경되고 다시 갱신되는 반복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²²

민중이 기존 제도와 담론을 수용해 이용하면서 편집, 수정, 파괴 및 전복하는 전유 활동을 술수(la ruse)로 규정한 셰르토(Michel de Certeau)는 이 술수라는 용

¹⁸ 장세룡, “미셸 드 셰르토의 일상과 민중문화,” 『서양사론』, 제82호 (2002), pp. 206~209.

¹⁹ ‘밀렵’은 “일정 장소를 자기 공간으로 삼아 잠시 전유하고 의미를 생산하는 공작 활동”이다. 이 생산은 기억을 발명하는 과정이며, 밀렵은 권력이 지배하는 전략적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장세룡, 『미셸 드 셰르토, 일상생활의 창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pp. 38~39.

²⁰ 장세룡, “미셸 드 셰르토의 일상과 민중문화,” p. 213.

²¹ 알프 린트케, “일상사 중간보고,” 『일상사란 무엇인가』 (서울: 청년사, 2002), p. 47.

²² 제임스 C. 스콧,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했는가』 (서울: 에코리브르, 2010), pp. 472~477.

어를 약자가 권력의 체계에서 빈틈과 맹점을 이용해 강자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사고를 뜻하는 그리스어 ‘메티스’에서 끌어냈다.²³ 술수가 억압받는 자들이 자신의 생존과 자유를 위해 권력의 빈틈과 맹점을 이용해 강자를 극복하려는 ‘메티스’에서 착안된 것이면, ‘메티스’는 오랜 일상적 경험 속에서 터득된 일종의 축적된 ‘노하우(knowhow)’다.

따라서 이를 북한에 적용한다면, ‘메티스’는 주민과 관료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생존·욕망·이익을 위해 경험 속에서 터득한 행위이다. 경험은 행위의 실행을 통해 전개되었던 상황의 기억이며, 그 실행이 적합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누적적 기억이며, 그 기억에 대한 판단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되는 실용적인 적용이다. 따라서 ‘메티스’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으로서 ‘실용적 기술’과 “자신의 적을 이해하고 능가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획득한 지혜’다.²⁴ 북한의 주민과 관료들은 자신의 생존·욕망·이익을 위해 어떤 상황에 적합한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은 누적적 시간과 기억 속에서 적용 가능성을 더욱 높여서 ‘획득한 지혜’가 된다. 특히 ‘메티스’는 “융통성 없는 획일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유연하고 지역적이며 또한 다양하다.”²⁵ 지배가 통제하기 어렵고, 항상 지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무엇이라는 뜻이다.

Ⅲ. 국가전략과 충돌하는 일상, 그리고 공간의 변형

북한은 ‘고난의 행군’ 기간을 거쳐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과도기로 판단된다. 이런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가능케 한 것은 주민과 관료들의 다양한 ‘메티스’였다. 북한사회는 일상적 삶의 공간인 작업장, 시장, 가정에서 변화가 진행 중이며, 이 변화는 ‘실용적 기술’과 ‘획득한 지혜’로 진화하고 있다. 즉, 북한사회 변화의 미시적 요인으로서 ‘메티스’의 기술과 지혜를 유형화하고 그 동학을 분석하는 것은 거시적 변화의 전조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²³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 일상생활의 창조』, p. 47.

²⁴ 제임스 C. 스콧,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했는가』, p. 472.

²⁵ 위의 책, p. 502.

1. 국가전략과 충돌하는 '집단기억'

국가의 전략과 개인의 일상 삶은 다양한 층위에서 충돌한다. 그 충돌의 시간 동안 개인들의 공동의 기억은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낸다. 일상 삶에서의 '기억'의 누적과 국가의 전략을 전유하려는 '상상'이 결합되어 새로운 '실천'을 잉태한다는 것이다.

'기억'은 감각이 영혼 속에 남아 보존되는 것이라서 이성보다는 감성에 가깝다. 반복적 과정에 의해 오랫동안 축적된 기억은 사람들에게 현명을 주게 된다.²⁶ 따라서 기억의 반복적 축적은 사람들에게 현명을 주게 되고, 이 현명은 사람들의 실천을 위한 길잡이가 된다. 이는 '메티스'의 정의와도 의미상 연결된다.

이처럼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서 단일한 경험을 이루고 현명을 제공한다. 즉, 어떤 일의 발생과 기억의 축적은 경험을 이루고, 이 경험은 현명을 제공하여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천의 방법이 된다. 또한 기억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주장에 따르면, 기억이 "이따금씩 위기의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화하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²⁷

우선, 알브바슈(Maurice Halbwachs)의 '집단기억' 이론을 통해 국가의 기존 정체성과 새롭게 형성된 정체성 간의 충돌 메커니즘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집단기억'은 특정한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기억의 '사회적 틀(cadre sociaux)'로 보고, 기억이란 이런 틀을 통해서만 매개되며 그 내부에서만 유효하다는 근거 속에서 '집단기억'은 집단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을 여타의 집단과 구별지우는 특수한 정체성을 제공한다는 이론이다.²⁸ 집단 구성원들은 기억에 의해 집단 외부에 대해 배타적이지만, 집단 내부에서는 지속성, 연속성, 동질성의 의식을 갖게 된다.

알브바슈에 의하면, '집단기억'은 개념과 이미지가 결합된 양태를 보여주며 특정한 '공간'을 통해서 실체화되며,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공고해진다고 봤다.²⁹ 공

²⁶ 황태연, 『공자와 세계: 패치워크문명 시대의 공맹 정치철학 제1권(상)』 (파주: 청계, 2011), p. 311.

²⁷ 데이비드 하비, 임동근·박훈태·박준 옮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 (서울: 문화과학사, 2010), p. 221.

²⁸ Maurice Halbwachs, translated by Lewis A. Coser,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92);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억의 문화사』 (서울: 휴머니스트, 2005), pp. 48~49에서 재인용.

²⁹ 전진성, 위의 책, p. 49.

간을 매개로 형성되는 집단기억은 정체성 또는 전통을 산출한다. 즉 ‘집단기억’은 “공간의식에 매개된 ‘생생한 기억’으로서 그 집단 구성원들에게 ‘구체적’ 정체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³⁰ 그러나 집단기억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고착되지 않고 항상 유동적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통합보다는 갈등의 장 또는 그 잠정적 결과로 보는 편이 옳을 것”이며, 이 유동성의 틈새를 통해 ‘대항기억(countermemory)’이 생성된다. 즉, 집단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제공하는 ‘집단기억’이 “기성질서를 변조하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때, 이에 대항하는 새로운 기억의 생성을 뜻한다.³¹

‘대항기억’은 ‘집단기억’의 전복적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 기존 국가 정체성과 ‘고난의 행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주민과 관료의 기억이 충돌하고 있다면, 새로운 ‘대항기억’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새롭게 구성되는 ‘대항기억’은 새로운 행위 실천의 동인이며, 이것이 실천된다면 체제를 둘러싸고 일상생활 공간에서 균열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2. ‘지배공간’과 ‘대안공간’의 동학

“‘공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따라서 ‘어떻게 상이한 인간 실천이 공간의 상이한 개념화를 창출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대체된다.”³² 공간은 “생산물이자 생산자이고, 경제적 관계, 사회적 관계의 토대”이며, “‘사회’와 더불어 변화하는 것”이다.³³ 즉, “(사회적)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이다.³⁴ 공간의 변화는 인간의 실천과 결부된다. 인간의 실천이 전개되면서 공간은 새롭게 창출되거나 개념이 부여된다. 따라서 인간이 공간에서 어떤 실천을 전개하는가에 따라 그 공간의 의미가 설명되는 것이다.

공간은 주로 국가적 구획에 의해 통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배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생산하고 통제하는 ‘지배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배공간’에서 실행은 지배의 규범과 제도를 따라야 하며, 위반할 경우 법률적 제재 또는 신체적 구속을 받을 수 있다. 이 공간을 변형하기 위해서는 지배의 규범과 제도를 위반하는 인간의 실천이 개입되어야 한다. 그 실천의 개입은 공간의 개념과 성격을

³⁰ 위의 책, p. 50.

³¹ 위의 책, p. 93.

³² David Harvey, *Social Justice and the Cit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pp. 13~14.

³³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2014), pp. 27~29.

³⁴ 위의 책, p. 71.

다르게 변모시킨다. 이는 '지배공간'에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이 전개되는 '저항공간'의 창출을 의미한다.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지각공간(perceived space)', '인지공간(conceived space)', '체험공간(lived space)'을 통해 공간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³⁵ '지각공간'은 대중이 일상적 행위나 전망을 상식적 감각으로 반복하며, 물리적 생산과 집단적 연대의 성취 가능성과 인간의 개별 원자화 현상의 유발 가능성이란 이중성이 공존하는 곳이며, '인지공간'은 '지식' 또는 '개념공간'으로서 공간의 표상에 관한 모든 이론적 담론의 공간이며, '체험공간'은 공간과 대상을 유동적이며 상황적인 상징과 심상으로 체험하는 곳이다.³⁶ 따라서 공간의 변형은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느끼는 감각, 상상, 감정, 의미들이 전개되는 '체험공간'에서 벌어진다. '체험공간'은 '권력과 폭력의 상징 등을 수동적으로 체험'해 온 곳이며, 동시에 '규범적 실천을 벗어나 자발적으로 저항'을 전개해 온 곳이다.³⁷

'지배공간'의 변형을 통한 '저항공간'은 일종의 '대안공간'을 뜻한다. '대안공간'은 "제도적 권력의 공간담론을 변혁하는 은밀한 지하운동적 실천을 수행하고, 지배와 강제된 사회적 공간의 규범 밖에서 새로운 공간적 존재와 실천 양식을 확보하려는 시도"로서 드러난다.³⁸ 공간은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위계적으로 구성되고, 행정적으로 구획되지만, 동시에 민중적 점유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능성의 공간이다.³⁹ 즉, 저항을 통해 지배를 전복할 수 있는 '대안공간'이란 것이다. "공간에 대한 공적 권리는 공적공간을 정치적 항의의 장소이자 항의자들을 위한 장소"로 만든다.⁴⁰ 따라서 이행기에는 새로운 공간의 생산이 관찰되며, 이 공간은 다른 양상으로

³⁵ Kanishka Goonewardena, Stefan Kipfer, Richard Milgrom, Christian Schmid, *Space, Difference, Everyday Life: Reading Henri Lefebvre* (New York & London: Routledge, 2008), p. 29. 자세한 설명은 앙리 르페브르, 위의 책, pp. 80~97.

³⁶ 장세룡, "앙리 르페브르와 공간의 생산: 역사 이론적 '전유'의 모색," 『역사와 경계』, 제58권 (2006), p. 307. 데이비드 하비는 르페브르의 세 가지 공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물질적 공간(물리적 접촉과 감각에 기반한 지각과 경험의 공간), 공간의 재현(머릿속으로 이해되고 재현되는 공간), 재현의 공간(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 방식을 구성하는 감각, 상상, 감정, 의미들의 생활공간)이라는 자기 고유의 삼각분할을 고안한 것이라 본다. 데이비드 하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 p. 209.

³⁷ 장세룡, "앙리 르페브르와 공간의 생산: 역사 이론적 '전유'의 모색," 『역사와 경계』, 제58권 (2006), p. 307.

³⁸ 위의 글, p. 308.

³⁹ 김종욱, "북한관료의 일상과 체제변화: '지배공간'의 변형과 기억의 실천," 『북한의 권력과 일상 생활』 (파주: 한울, 2013), p. 285.

⁴⁰ 장세룡, "도시공간점거와 직접행동 민주주의: 2011년 9월 뉴욕 월 가 '점령하라' 운동에 관한 성찰," 『역사와 경계』, 제99권 (2016), p. 263.

변화된다.⁴¹

시장의 상실화·합법화는 주민들의 시장 활동의 결과로 실현된 것이며, 따라서 시장은 시장 관계자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공간에 대한 공적 권리의 확산은 ‘지배공간’을 서서히 ‘대안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양상을 띤다. 이러한 기억의 축적은 공적 공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실천과 결합되며, 이 실천을 통해 “공간에의 접근과 조종 및 통제를 모색하는 공간투쟁은 공적 인정을 획득하는 강력한 전략”이 된다.⁴² 즉, 북한에서 벌어지는 시장 확산과 국가 통제의 충돌과정을 추적하고, 국가 통제 영역 밖에서 개인들의 행위(점)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떠한 관계망(선)이 형성되어, 새로운 공간(면)을 형성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북한은 감시와 통제를 극단까지 밀어붙인 체제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공간은 철저하게 국가에 의해 규정되는 ‘지배공간’이다. 즉, 푸코가 분석한 ‘파놉티콘(panopticon)’의 효과가 작동하는 감시공간이다. “밀집된 다수, 다종다양한 교환의 장소, 서로 의존하고 공동하는 여러 개인, 집단적인 효과인 균중이 해소되고, 그 대신 구분된 개개인의 집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설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간수의 관점에 선다면 그러한 균중을 대신하여 계산 조사가 가능하고 규제하기 쉬운 다양성이 나타나며, 유편된 자의 관점에 선다면 격리되고 관찰되는 고립성이 나타”나는 원리이다. 즉, “권력의 자동적인 작용을 확보하는 가시성에 관한 영속적인 자각 상태를 유편되는 자에게 유도하는 것이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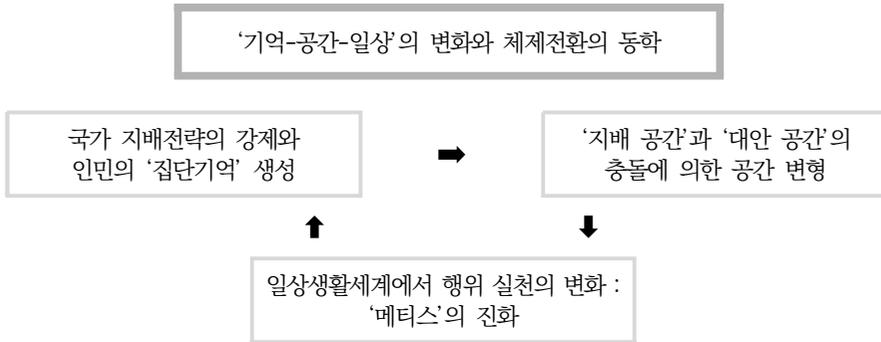
이 ‘파놉티콘’의 효과가 균열된다면 통제와 감시 그리고 처벌도 약화될 것이다. 감시는 인간의 다양성에 관한 질서화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인데, 감시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효율화되어야 한다. 만약 이런 효율성과 강력함이 이완된다면, 감시의 효과는 축소되고 ‘밀집된 다수, 다종다양한 교환의 장소, 서로 의존하고 공동하는 여러 개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 바로 이 약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메티스’다.

⁴¹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p. 98.

⁴² 장세룡, “도시공간점거와 직접행동 민주주의: 2011년 9월 뉴욕 월 가 ‘점령하라’ 운동에 관한 성찰,” p. 264.

⁴³ 미셸 푸코, 박홍규 옮김, 『감시와 처벌』 (춘천: 강원대학교출판부, 1994), p. 261.

〈그림 1〉 북한의 '기억-공간-일상'의 변화와 체제전환의 동학



북한의 '기억-공간-일상'의 변화와 체제전환의 동학은 그 선후차성과는 별개로, 국가 지배전략의 관철과정에서 발생한 인민의 '집단기억'에 의해 지배공간에서 이에 반발하거나 전유하는 행위들이 발생하면서 '대안공간'이 창출되고, '지배공간'과 '대안공간'의 충돌에 의해 공간의 변형이 발생하며 동시에 집단기억이 갱신되는 반복적 과정을 거친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일상생활세계에서 주민과 관료들의 행위실천으로서의 '메티스'다. 즉,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인민의 '집단기억'이 충돌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확산은 '읽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주체의 현상학적 경험적 생활세계에서 구체화되는 어떤 것이며, 이데올로기 전파의 핵심 모드의 하나는 기억과 공간간의 연결이다.⁴⁴ 따라서 주민과 관료들의 '메티스'에 의해 국가 이데올로기가 단절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바로 그곳에 '대안공간'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북한사회의 공간변형과 일상의 변화에 의해 대안공간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IV. 북한사회 공간의 변형과 일상의 변화

'대안공간'은 "제도적 권력의 공간담론을 변혁하는 은밀한 지하운동적 실천을 수행하고, 지배와 강제된 사회적 공간의 규범 밖에서 새로운 공간적 존재와 실천 양식을 확보하려는 시도"로서 드러난다. '규범적 실천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수행된 저항'을 통해 구성되는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지배공간' 내부의 규범과 강제를 벗

⁴⁴ Eli Rubin, *Amesopolis: Modernity, Space, and Memory in East German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 6.

어난 해방의 영역이 점차 확산되는 것이며, 동시에 ‘지배공간’이 축소되는 것이다.

1. 대안공간의 확산 정도

우선, ‘대안공간’의 확산은 단적으로 시장의 확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확인된 공식시장이 200여개였는데, 2015년 동일한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합법적 공식 시장은 406개로 5년 사이에 두 배 증가했다.⁴⁵ 북한 당국이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며, 비공식시장 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진다. 도별 시장 수는 평균 41개, 전체 시장 면적은 83만 9,580㎡(55만 6,470평)이며, 총 판매대는 109만 2,990개, 종합시장 한 곳 당 이용 인구는 평균 5만 6,690명, 전체 종사자는 109만 9,050명으로 북한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⁴⁶ 이렇듯 북한사회에서 시장은 새로운 공간에서 ‘익숙한 공간’으로, 당의 복지시스템을 대체하는 교환과 경쟁의 새로운 삶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시장의 확산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 소련의 경우, 시장개혁 이후 사회적 관계가 변화되었고,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분열(disintegration)의 과정을 동반했으며, 분열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분파의 성장 환경이 되었고, 각 분파들의 독립성이 강화되었던 역사적 과정 때문이다.⁴⁷ 북한에서 시장의 확산은 사회적 분열과 분파의 성장, 이 분파들이 독립성을 강화시켜 사회적 다양성과 충돌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시장 활동의 확산은 국영기업의 운영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 공간이 북한 사회에서 ‘은밀한 정당화’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 활동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 교환의 매개로서 화폐라는 새로운 수단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체성의 변화가 동반된다. 이 과정에서 시장 세력은 시장의 활동을 점차 정당화하며, 이 ‘은밀한 정당화’를 억제하려는 북한 당국과 도처에서 저항을 전개한다.⁴⁸ 이런 현상은 ‘지배공간’에서 ‘대안공간’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⁴⁵ “북, 합법적 공식 시장 406개,” *Radio Free Asia*, 2015년 10월 24일.

⁴⁶ 권태진, “북한의 농업부문 시장화 실태와 전망,” 『시선집중 GS&J』, 제249호 (2018), p. 3.

⁴⁷ Hillel Tiktin, *Origins of the Crisis in the USSR: on the Political Economy of a Disintegrating System* (London: M.E. Sharpe, 1992), p. 170; 윤철기, “북한체제 위기관리의 동학: 김정일 시대, 체제 위기의 양상과 수준에 관한 평가,”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6집 2호 (2014), pp. 99~100에서 재인용.

또 다른 변화는 작업장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북한의 기업소에 돈 있는 사람들이 중책을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⁴⁹ 북한 당국의 시장 활동에 대한 일정한 개방성 확대는 기업 활동의 자율성 확대로 이어져서, 돈 있는 사람들이 기업소에 개입하여 경제적 수익을 확대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북한 기업소의 운영권이 기업소의 당 조직 또는 지배인에서 서서히 '돈주'들에게로 이전되는 것이다.

계획 영역에서 사유화의 확산은 점차 대규모 형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사적 자본이 국영기업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고 자산을 임차하여 자금 투자부터 직접 고용까지 전체 경영활동을 책임지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사적 자본이 국영기업에 대부투자를 하고, 투자한 몫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회수하는 방식까지 등장했다.⁵⁰

북한 경제에서 비공식 경제 영역의 확산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생산재시장, 소비재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등 4대 시장 영역에서 시장 네트워크가 확산·성장하고 있다. 그 네트워크는 '씨래기'로 지칭되는 생산·판매상(일종의 매뉴팩처어 운영자)의 경제활동을 통해 알 수 있다. 개인이 자기 돈 또는 대여·투자 등을 통해 자본을 확보하여 원자재와 노동력을 구매하고 물자를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⁵¹ 이 과정에서 4대 시장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고,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경우 더욱 확산·구조화된다. 이러한 영역은 서비스, 농업, 수산업, 광업, 무역업, 제조업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시장과 관료적 권한의 결합에 의한 시장경제 요소의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특수단위'의 관료적 권한과 돈주의 자본이 결합하는 방식이다. 돈주들은 대부분 '특수단위'의 '보호'를 통해 '특수단위'의 '시장 활동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외화벌이 원천의 채취·가공 및 수출업에 참가하는 '외화벌이 종사자'들이기도 하다.⁵² 즉, 국가 특수기관의 관료적 권한

⁴⁸ 윤철기, "북한체제 위기관리의 동학: 김정일 시대, 체제 위기의 양상과 수준에 관한 평가,"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6집 2호 (2014), pp. 106~107.

⁴⁹ 임을출,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합의 및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1호 (2015), p. 214.

⁵⁰ 윤인주,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연구," 『2012 북한 및 통일관련 신진연구 논문집』 (서울: 통일부, 2012), pp. 506~507.

⁵¹ 김석진, 양문수,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 요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55~56.

⁵² 최봉대,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체제이행론적 의미," 『통일문제연구』, 제26권 1호 (2014), p. 169. '특수단위'는 무력부, 보안성, 보위부, 중앙당 특수부서들, 호위사령부 등과 같은 북한의 특권적 국가기관을 지칭하는 용어다. 같은 글, p. 162.

과 돈주의 자본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불법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둘째, 공장·기업소의 책임간부 또는 지배인과 시장세력 간의 이익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의 확산이다. 특히 지배인은 “비공식적으로 개인자금을 투자 받아 생산한 상품을 시장에 판매하여 공장·기업소 활성화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설비 보강이나 자재 확보 등 생산 확대에 재투자한다.”⁵³ 인민경제 부분의 간부들은 국가의 자재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계획지표를 실현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들은 비공식 활동을 통해 관료적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구축하는 것이 사활적이며, 동시에 관료적 권한을 통해 사적 이익을 창출하는 이중적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과거 계획경제 시스템에서도 비공식 활동을 통해 계획지표를 채울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노하우가 시장 경제 요소와 결합하여 더욱 풍부화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일반적이며 소규모 수준인 국가기관과 시장의 연계활동이다. 국가기관들은 시장에서 실현된 잉여를 분할하여 비생산적인 소모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시장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⁵⁴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대부분 합법적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금지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이 상황은 ‘불법적 구조의 합법적 용인’의 수준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를 엄금할 경우 북한 경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다.

2. 공간의 변형에 의한 삶의 변화

우선, 정보와 문화의 유입에 따른 신념과 가치의 변화로서 ‘대안공간’이 확산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서 확산된 한류현상은 북한 주민들의 신념과 가치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보인다. 특히, 이런 문화의 유입은 노트텔로 불리는 EVD 플레이어, 중국산 저가 태블릿 PC, 손전화 등의 다양한 정보 접촉 기술에 한류가 결합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탈북자 또는 중국 체류 북한 주민, 북한 현지주민들의 인터뷰에서도 신념과 가치의 변화가 읽힌다. 탈북자 인터뷰에서 남북한 국가성격의 비교 평가가 이뤄지고

⁵³ 위의 글, p. 170.

⁵⁴ 위의 글, p. 170.

있다. 한 탈북자는 “남조선 보도 보면 자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고 해야 하나”라며, 자유의 유무 여부를 통해 남북한의 비교하며, 동시에 “우리는 아직 대통령을 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남조선은 정치가 너무 물러 터졌다는 생각”도 든다는 느낌을 얘기한다.⁵⁵

당 간부들도 남한의 발전상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 당 간부나 관리자들은 우리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쿠투밥술으로 사다 주십시오. 부탁을 하죠. 그런 것을 본다면 고위층이면 고위층일수록 더 많이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깐 한국 물건을 더 찾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국가나 당에 대한 충성이 때가 되면 더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⁵⁶

이렇듯, 북한사회의 기억과 행동의 변화에 의한 공간적 변형은 새로운 기억과 행동으로의 전환과 정체성의 다변화로 나타난다. 북한 주민들에게 주체사상은 삶의 지표이며 강제된 사상이었다. 그래서 여전히 주체사상 외에는 다른 사상을 붙은시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사는 거,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에만 신경을 쓰지 사상은 전혀 상관없다”는 주민도 있다. 즉, “그전에 주체사상에 대해 많이 믿었는데, 지금은 주체사상이 없어요. 고저, 오직 고저 하루 살기 밖에 생각안”하는 생존 중심의 삶, 시장과 이익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양상이 확대되었다.⁵⁷

이런 양상은 북한의 관료들에게도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간기관원들은 뇌물을 받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되었고, 국가의 일과 시장 두 곳에 연결되어 관료적 권한과 시장적 이익을 연계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뇌물 고저 안 주어진 발짝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며, 관료들도 “장사 안하면 못 먹고 살”아가는 상황이다.⁵⁸

둘째, 시장의 ‘기억-공간-일상’ 변화를 통해 전개되는 공간과 삶의 변동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 확산되는 시장은 기억의 변화와 도시공간의 변형을 가져왔으며, 시장과의 연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상을 만들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누적은 북한을 이전과 다른 세계와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 시장의 확산을 통한

⁵⁵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0집 (2014), p. 186.

⁵⁶ 광정래,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으로 본 북한사회 내 정보 이동성과 커뮤니케이션 구조 분화,” 『사회과학연구』, 제26권 3호(2015), p. 380.

⁵⁷ 강동완·박정란,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 실태 및 북한주민 의식조사: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북한학보』, 제39집 2호 (2014), pp. 117~118. 이 논문은 2012~2014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담고 있다.

⁵⁸ 강동완·박정란, 위의 글, pp. 128~136.

시장경제 공간의 확대는 북한사회를 양극화로 인도하면서, 계층적 변화를 가하고 있다. 양극화는 시장과 연계된 계층들의 부(富)가 확대되는 것인데, 그 양상은 관료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과 시장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시장세력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이 네트워크에 편입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계층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⁵⁹ 이러한 양극화의 심화·확대는 북한 체제변동의 중요한 동인이 될 것이며, 동시에 하류계층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 속에서 대안공간을 더욱 확장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는 정부 능력에 대한 불신과 생존을 위한 투쟁의 적극화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심성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사회주의 공장은 규율 잡힌 노동자들이 생산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혁신노동자’의 충성의 구호가 흘러나오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노동자들의 의식은 서서히 변화되었다. 국가의 생산을 담당하는 신성한 공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장을 활용하는 공간으로의 변화를 뜻한다. 즉, 공장기업소의 ‘직무가 곧 나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획경제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노동자들의 삶이 전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⁶⁰

그리고 이미 도시공간에서 기억의 실천과 공간의 변형 전술을 통해 일상이 변화되고 있다는 조짐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전후로 각 도시에 도보안국 기동타격대가 설치되었다. 기동타격대는 도시 소요 및 폭동 진압, 비법적 행위 및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1년 초 청진시 전 보안서장이 괴한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 함경북도 연사군에서 주민 빨감을 회수하던 산림감독원 3명이 살해당하는 사건 등이 발생한 것은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저항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도시 내부의 새로운 공권력 구축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¹

현재 인민보안부 조선인민내무군 산하에 편재되어 있으며, 김정은 후계자 시절인 2009년 4월에 기동타격대가 처음 조직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1년 2월에 인민보안부 조선인민내무군 산하로 정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동타격대는 도시에서 발생할 소요와 폭동을 대비하기 위함이며, 중무기로 무장한 것으로 보인

⁵⁹ 김양희, “북한의 시장화와 주민 식량권 사이의 상관성 연구,”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29~36.

⁶⁰ 김화순, “생존의 정치: 북한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평화연구』, 제26권 1호 (2018), p. 201~202.

⁶¹ “북 폭동진압 특수기동대 이달 초 설치,” 『동아일보』, 2011년 2월 24일.

다.⁶² 그만큼 도시에서 '대안공간'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지배공간'이 파괴되고 '대안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즉, 북한의 주민들은 자신의 참담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또는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은밀한 지하 운동적 실천을 수행'하고 '지배공간'이 강제하는 규범 밖으로 '새로운 공간적 존재와 실천 양식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동시에, 지배의 규격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일상적 실천을 축적하여 민중적 '메티스'를 장착할 것이며, 자신들만의 일상적 리듬을 만들어 가면서 공간을 변형하고 체제를 균열·부식시킬 것이다.

V. 나오며: '희뿌연' 파노라마의 북한

한반도의 정세는 급격하게 대화와 협력의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상황 변화에도 북한사회 내부에서 생존과 이익을 위한 주민과 관료들의 일상 삶은 지속될 것이다. 주민과 관료들은 '기억-공간-일상'의 변화를 통해 '대안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와 사람들이 만들어낸 선택지들은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변화된 일상 속에서 새로운 기억들이 누적되고, 다양한 '메티스'의 실천은 공간을 변형시키고, 변형된 공간 속에서의 일상적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프로파간다와 실제 삶의 질 사이의 밀고 당기기”는 지속된다.⁶³ 이 변화 속에서 '지배공간'의 규범과 강제를 벗어난 해방의 영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분열과 분파가 확산되면서 자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경향성이 강해지고 있다. 그것은 북한 사회공간에 시장 경제적 요소가 구조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경제 공간까지 침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 경제적 요소를 침입시키고, 직접적 경영권까지 접수하는 상황으로 발전한다. 이 과정은 관료적 권한과 시장적 이익의 공모·담합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정보와 문화의 유입을 통해 주민들의 신념과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 더욱 확산된다.

주민과 관료들의 '대항기억' 행동화의 속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저항 전술의 다양한 '메티스'도 확산되고 있다. 사회주의 북한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제어하기

⁶² 홍민,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p. 177~178.

⁶³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좌우할 북한 체제의 미래,” *NK News*, 2017년 02월 17일.

위한 형벌과 민법이 보충되고 있으며, 사유화 현상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북한 당국은 시장을 억제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시장 경제적 요소는 확대되고 있다. 이런 조치가 가능한 것은 생존과 이익을 위한 주민과 관료들의 다양한 일상 전술 때문이다.

관료적 권한과 시장적 이익의 공모와 담합 방식이 다양한 공간과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북·중 교역 루트와 북한 지역 내 시장 네트워크가 결합되어 상황을 구조화하고 있다. 즉, 북한 주민의 시장 활동, 북한 주민과 관료의 공모와 담합의 네트워크, 북·중 교역의 확대와 다양성 등이 결합되어 북한 전 지역은 시장적 유통망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가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사람과 물자·정보가 전달되는 점과 선이며, 다양한 주민·관료의 네트워크와 공모·담합의 이동경로이며, 북한 당국도 통제하기 어려운 생존과 이익이 창출되는 지대로 변모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벌어지는 변화가 체제 수준에서 ‘티핑포인트(tipping point)’⁶⁴로서 기능할 것인지를 예측은 ‘희뿌연’ 파노라마다. 체제 유지의 강력한 상징권력이었던 ‘수령’은 ‘화폐’와 경쟁하고 있다. 국가복지의 상징이었던 증여시스템은 ‘자강력제일주의’에 의해 강제적 자립화로 인민에게 맡겨졌다. 관료체제를 유지할 통치자금은 제재와 압박 속에 고갈되고 있다. 또한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과 관료들이 겪은 기억, 그리고 그들의 실천이 변화시킨 공간과 일상의 연계는 그들의 신념과 가치를 변화시키고 있다. 즉, 국가 정체성의 변화가 일상으로부터 시작되어 구조와 공간을 변동시키고 있다.

주민과 관료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 ‘대안공간’은 확대되고 있으며, 주민을 통제·억압하는 권력에 맞서 ‘메티스’로 행동하고 맞서는 전술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당국의 통제로는 제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새로운 관계망과 연출문화가 구성되고 있다. ‘티핑포인트’는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체제의 붕괴는 불안과 두려움이다. 외부의 바람이 내부의 현실일 수는 없다. 북한의 주민과 관료들이 그 체제전환의 결과로서 나타날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뚫고 나올 때, 현실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고, 그들의 실천이 인도할 것이다.

■ 제출: 4월 30일 ■ 심사: 5월 21일 ■ 채택: 6월 7일

⁶⁴ 티핑포인트 법칙은 역동적 네트워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양이 증가하고 그것이 결국 질적인 변화까지 만들어냄을 의미한다. 리처드 오글, 손정숙 옮김, 『스마트월드: 세상을 놀라게 한 9가지 창조성의 법칙』 (서울: 리더스북, 2008), p. 199.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석진·양문수.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 요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김양희. “북한의 시장화와 주민 식량권 사이의 상관성 연구.”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데이비드 하비. 임동근·박훈태·박준 옮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 서울: 문화과학사, 2010.
- 리처드 오글. 손정숙 옮김. 『스마트월드: 세상을 놀라게 한 9가지 창조성의 법칙』. 서울: 리더스북, 2008.
- 미셸 푸코. 박홍규 옮김. 『감시와 처벌』.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4.
- _____. 이상길 옮김. 『헤테로토피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6.
- 안병직 외. 『오늘의 사회학』.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8.
- 알프 루트게. 나중석 외 옮김. 『일상사란 무엇인가』. 서울: 청년사, 2002.
-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2014.
- 이우영.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7.
-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 일상생활의 창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억의 문화사』. 서울: 휴머니스트, 2005.
- 제임스 C. 스콧.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했는가』. 서울: 에코리브르, 2010.
-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 _____.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4.
- 해리 하르투니언. 윤영실·서정은 옮김. 『역사의 요동: 근대성,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 서울: 휴머니스트, 2008.
- 홍 민.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황태연. 『공자와 세계: 패치워크문명 시대의 공맹 정치철학 제1권(상)』. 파주: 청계, 2011.
- _____.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 2: 공자 윤리학과 정치철학의 심층이해를 위한 학제적 기반이론』. 파주: 청계, 2015.
- Bonker, Frank, Klaus Miller and Andreas Pickel. “Cross-Disciplinary Approaches to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Context and Agenda.” Frank Bonker et al.(eds.).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and the Social Science: Cross-Disciplinary Approache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2.
- Goonewardena, Kanishka, Stefan Kipfer, Richard Milgrom and Christian Schmid. *Space, Difference, Everyday Life: Reading Henri Lefebvre*. New York & London: Routledge, 2008.

- Halbwachs, Maurice. translated by Lewis A. Coser.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92.
- Harvey, David. *Social Justice and the Cit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 Lavigne, Marie.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95.
- Rubin, Eli. *Amesopolis: Modernity, Space, and Memory in East German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Tiktin, Hillel. *Origins of the Crisis in the USSR: on the Political Economy of a Disintegrating System*. London: M.E. Sharpe, 1992.
-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2. 논문

-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0집, 2014.
- 강동완·박정란.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 실태 및 북한주민 의식조사: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북한학보』. 제39집 2호, 2014.
- 곽정래.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으로 본 북한사회 내 정보 이동성과 커뮤니케이션 구조 분화.” 『사회과학연구』. 제26권 3호, 2015.
- 권태진. “북한의 농업부문 시장화 실태와 전망.” 『시선집중 GS&J』. 제249호, 2018.
- 김종욱. “북한 관료의 일상과 체제변화: ‘지배공간’의 변형과 기억의 실천.” 『현대북한연구』. 제12권 3호, 2009.
- _____. “북한관료의 일상과 체제변화: ‘지배공간’의 변형과 기억의 실천.”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파주: 한울, 2013.
- 김화순. “생존의 정치: 북한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평화연구』. 제26권 1호, 2018.
- 오인혜. “북한의 헤테로토피아적 장소성과 점화 효과: 재미교포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0권 4호, 2015.
- 윤인주.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연구.” 『2012 북한 및 통일관련 신진연구 논문집』. 서울: 통일부, 2012.
- 윤철기. “북한체제 위기관리의 동학: 김정일 시대, 체제 위기의 양상과 수준에 관한 평가.”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6집 2호, 2014.
- 임강택. “북한 시장 활성화의 숨은 그림, 국영기업의 역할.”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6월호.
- 임을출.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1호, 2015.
- 임형백. “사회주의 북한 공간구조의 자본주의 공간구조로의 변화 전망: 북한 내부요인과 동북아공간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10권 1호, 2010.
-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과 민중문화.” 『서양사론』. 제82호, 2002.
- _____. “앙리 르페브르와 공간의 생산: 역사 이론적 ‘전유’의 모색.” 『역사와경계』. 제58권,

2006.

_____. “헤테로토피아: (탈)근대 공간 이해를 위한 시론.” 『大丘史學』, 제95집, 2009.

_____. “도시공간점거와 직접행동 민주주의: 2011년 9월 뉴욕 월 가 ‘점령하라’ 운동에 관한 성찰.” 『역사와 경계』, 제99권, 2016.

조정아. “구술자료를 활용한 북한 도시연구: 이론적 자원과 방법.” 『북한학연구』, 제8권 2호, 2012.

최봉대.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체제이행론적 의미.” 『통일문제연구』, 제26권 1호, 2014.

최완규·이무철. “북한의 체제전환 전략과 국제협력: 평가와 과제.” 『현대북한연구』, 제12권 1호, 2009.

홍 민. “북한연구에서 ‘공간’ 이해와 도시사의 가능성: 함흥과 평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8권 2호, 2012.

Halvorsen, Sam. “Taking Space: Moments of Rupture and Everyday Life in Occupy London.” *Antipode*. Vol. 47 No. 2, 2015.

Pavlinek, Petr. “Alternative Theoretical Approaches to Post-Communist Transformation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cta Slavica Iaponica*. No. 20, 2003.

3. 기타자료

『동아일보』.
BBC News.
NK News.
Radio Free Asia.

Abstract

The Dynamics of System Transformation and ‘Mētis’ of North Korean Residents and Bureaucrats: Focused on Henri Lefebvre’s ‘Alternative Space’

Jong Wook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linkage dynamics between the ‘memory-space-everyday’ change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he bureaucrat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system. Transformation not only changes the institutional system but also changes the structure of the official and informal network of society, and changes in culture, beliefs and values. Therefore, tracking space and everyday deformation by memory and action is a medium that can read changes in network structure, culture, beliefs, and values. At the same time, the change process of ‘memory-space-everyday’ has meaning as a signal to inform the path of cracking speed and direction of the system. A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system, we trace the ‘Mētis’ of North Korean residents and bureaucrats as ‘practical skills’ and ‘acquired wisdom’ that have adapted to the changing nature and human environment. In other words, the North Korean society is accelerating the actuation by the memory of the residents and the bureaucrats, and various ‘Mētis’ are spreading. This means that the ‘alternative space’ for the survival and profit of the residents and bureaucrats is expanding, and the tactics of acting as ‘Mētis’ against the power of the people to control and oppress are becoming more diverse. This shows that a new network is formed at a level that can not be controlled by the authorities. This is the barometer of the direction of the transformation.

Key Words: Space, Memory, Alternative Space, Countermemory, Dynamics, Mētis, Marketplace, Everyday, Workshop, Ruling Space, Collective Memory, System Transformation, Panopticon